

개인 성향과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

황 유 선**

Personal Characters and Addictive Use of Facebook*

Yoosun Hwang**

■ Abstract ■

The current study explor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ddictive use of facebook.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s and the addictive use of facebook. To define the addictive use of facebook, various issues and the definitions of the Internet addiction were first considered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n depression, extroversion, openn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were considered as the personal characters. Data were obtained by online survey and 600 responses were gathered. The results revealed that depression predicted the higher degree of the addictive use and low communication competence positively affected the addictive use of facebook. However, after controlling for communication competence, depression and extroversion were both associated the addictive use of facebook. Further, social compensation perspectives and social enhancement perspectives, and the policies on the SNS addiction were discussed.

Keyword : Facebook, Addiction, Depression, Extroversion, Open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1. 연구의 배경

최근 영국의 가디언 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용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NS)가 담배나 술보다 더 끊기 어려운 중독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¹⁾ 아직까지 SNS 중독이 의학적으로 공식화 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과도한 SNS 이용이나 SNS에 대한 강박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휴대할 수 있는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라도 SNS에 접속할 수 있고 시시콜콜한 일상을 SNS 인맥과 공유하며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 더 많은 시간을 SNS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의 성인들은 습관적으로 하루 평균 34번 스마트폰을 확인하는데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를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²⁾ 지난 2013년 국내의 SNS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이용률은 69.3%, 10대는 48.7%, 30대는 46.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SNS 이용량은 72.8분으로 조사됐고 이는 전화통화, 문자, 그리고 메신저 채팅 시간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KISID, 2013).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KCC, 2012) 스마트폰 중독자 77%의 주된 스마트폰 이용목적이 SNS 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NIA, 2012).

물론 이처럼 SNS의 절대적인 이용량만으로 SNS 중독의 심각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SNS를 많이 이용하면서 그만큼 친구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SNS를 이용함으로써 현실에서의 고립감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겨난다면 비록 SNS를 과도하게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

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SNS 주된 이용 목적은 친목이나 인맥관리인 것으로 드러났다(KRIVET, 2013). 앱(app)을 통해 사회적 교류가 이뤄지는 SNS의 지속적인 이용과 대인 관계의 질적 특징을 두고 상반된 견해가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이용이 실제로는 대인 관계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ICT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결국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Turkle, 2011). 반면, 장애가 있거나 만성 질환 등으로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SNS를 통해 친구를 만들고 그들에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된다는 점에서 SNS 이용이 오히려 인간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견해다(Johnson et al., 2013).

그러나 중독이란, 그것이 비록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정신적 만족감을 기대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SNS의 기술적 특성상 실시간 소식에 대한 강박감내지는 SNS 커뮤니티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등이 과도해 짐으로써 SNS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일상에 지장을 받기 시작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 SNS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디지털 피로감(digital fatigue)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³⁾ 중독은 행동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반응함으로 인해 일상적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SNS의 과도한 이용이 초래하게 될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중독의 요인을 탐색하거나(Park and Kwon, 2007) 스트레스 및 자아 의식 등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의 효과 분석(Kim et al., 2007), 혹은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Kim et al., 2013) 진행되어 왔다.

한편, 매체에 대한 중독 성향이 심해지는 것은 문제가 되는 이슈일 뿐 아니라 SNS와 같은 대인

1) 2012년 2월 3일자 가디언 보도 "Twitter is harder to resist than cigarettes and alcohol, study finds."

2) 2011년 7월 28일 personal and ubiquitous computing 보고서 자료에 대한 CNN 보도 "Do you obsessively check your smartphone?."

3) 2011년 1월 28일자 한국일보 "[소셜 네트워크의 그늘] SNS에 쌓은 모래성 인맥 ..." 나를 잃어버린 다 "SOS."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개인 생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는 중요한 소통 매체로 자리 잡았다(NIA, 2012). 그렇기 때문에, SNS 중독에 관련한 정책적 제언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NIA, 2008, 2010; PLERI, 2010) SNS 중독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주로 스마트폰 이용과 연계해 이루어졌다(Lee, 2013; MGEF·KSJCS, 2013). 스마트폰 사용은 결국 SNS 이용으로 이어지고 SNS를 통한 대인간 상호작용이 이미 생활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의 SNS 중독 요인을 살펴보고 그에 적합한 정책 도출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관계 지향적인 SNS에 중독되는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요구 역시 제기되고 있다(NIA, 2012).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 성향이 사회적 고립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은 물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요구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SNS 중독의 심각성 혹은 결과에 대한 탐색보다는 SNS의 중독적 이용과 관련된 개인의 성향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 다시 말해, SNS 이용자의 어떠한 성향 혹은 어떠한 상황이 SNS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대인간 소통 매체로서 SNS의 중독적 이용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SNS 중독에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논의

2.1 인터넷 중독과 페이스북 중독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처럼 실질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동반하거나 독성은 없지만 정신적으

로 중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터넷 중독이다. 인터넷이 확산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과잉 의존과 그로인해 일상적 삶이 방해 받게 된다는 점이 공통되게 지적되어 왔다.

영(Young, 1998a)은 인터넷 중독을 독성이 가미되지 않은 상태의 충동제어 장애(impulse-control disorder)라고 규정했다. 인터넷 중독은 다양한 충동제어 문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게임 중독, 온라인 쇼핑 중독, 강박적인 웹서핑 혹은 자료 집착증, 온라인 관계 중독 등 인터넷을 활용한 여타의 행동 중독을 아우른다(Young, 1999). 결국, 인터넷 중독은 다른 중독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고(Griffiths, 2000) 문제적 인터넷 사용은 충동제어 장애로 개념화할 수 있다(Shapira et al., 2003).

인터넷 중독은 심리적으로 인터넷에 속박되는 경우로 볼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잊거나 그것이 편찮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얻게 되므로 인위적이고 순간적인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Peele and Brodsky, 1991). 또 인터넷 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로부터의 회피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금지될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Young, 2004).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한 뒤 어떤 행동을 하는지와는 별개로 인터넷 중독은 일종의 심리적 의존증이라고 볼 수 있다(Kandel, 1998). 이에, 데이비스(Davis, 2001)는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중독보다는 인터넷 의존성(dependence) 혹은 병리학적인 인터넷 이용(pathological use)이라고 보는 관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터넷 중독은 화학적 중독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가운데 발생된다는 점

에서 기술 중독(technological addiction)이라고 할 수 있다(Griffiths, 1995). 즉, 이제 중독의 개념은 약물 중독 등의 화학적 중독이라는 제한을 넘어서 독성 없는 중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텔레비전 시청 중독(Winn, 1983), 비디오 게임 중독(Keepers, 1990) 등이 그 예가 된다.

지금까지 제시된 인터넷 중독 개념은 페이스북 중독 혹은 페이스북 과이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준거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 의지가 높고 페이스북 의존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페이스북 중독 성향이라고 규정하였다. 페이스북 중독 성향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페이스북 중독을 단순히 인터넷 중독의 구체적인 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 SNS 중독을 인터넷 중독의 연장선상에서 해석 하고자 한 시도들이 있다. 가령, 페이스북 이용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정상적인 직업생활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현상이 기존의 인터넷 중독 결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페이스북 중독 역시 인터넷 중독과 같은 스펙트럼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Karaiskos et al., 2010). 또 SNS의 동시적인 상호작용과 SNS를 통한 멀티태스킹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업에 소홀해지게 된다(Kirschner and Karpinski, 2010). 이러한 현상 역시 페이스북을 통한 소통을 더 선호하며 오프라인에서 가족, 친구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직장생활 및 학업 수행에도 지장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중독과 같은 사안으로 해석된다. 페이스북 중독으로 인해 개인 삶에 소홀해 질 뿐 아니라 페이스북에 강박적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현실로부터 회피하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며 타인에게는 페이스북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숨기는 증상 역시 수반된다(Kuss and Griffiths, 2011). 한편, SNS 중독 증상도 어떠한 물체나 행위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데(Eucheburua and Corral, 2010) 알콜이나 인터넷, 그리고 게임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SNS 중독 역

시 뇌에 영향을 미쳐 도파민을 분비한다고 보고되었다(Song, 2011). 따라서 SNS 이용에 중독적인 성향을 보일 경우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점이야말로 페이스북 중독과 인터넷 중독이 공통적으로 유발하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이 사회와의 단절 혹은 대인관계의 고립으로 연결된다는 지금까지의 현상과 분석들(Jin and Chung, 2009; Sanders et al., 2000)에 반해 페이스북 중독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이용은 웹상에서 맺은 인맥 관계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페이스북 상의 인맥 관계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부터 알고 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단절되거나 대인관계가 고립되어 있을 경우 사교적 차원의 과도한 페이스북 이용은 어려워지게 된다. 물론, 여기에서는 광고나 기업 홍보를 위해 개설되어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탐독은 다른 범주로 분류 한다는 점을 전제 한다. 그러므로 페이스북 중독은 대인 관계 혹은 소통 욕구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연관 있다. 단적으로, 소속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SNS 중독 증상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Pelling and White, 2009). 또한 외향적이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SNS 이용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다(Wilson et al., 2010).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하며 소통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갖게 될 경우, 인식적으로는 물론이고 뇌신경 반응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보상 효과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mir and Mitchell,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페이스북 중독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오히려 과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발생된다고도 볼 수 있다.

페이스북 상에서는 인맥의 글, 사진, 정보 링크 등 다양한 소식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인맥 네트워크가 클수록 게시되는 콘텐츠가 많아진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맥에게 자신의 경험과 사생활, 그리고 생각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게시물을 보고, 반응을 남기고,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은 이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한다. 때문에 인맥들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자주 확인하게 된다. 즉, 위와 같은 패턴이 반복 순환되다보면 페이스북에 의존하게 되는 중독적 이용 성향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대인 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갈망이 페이스북 중독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만을 단정적으로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 페이스북은 오히려 새로운 소통창구가 될 수 있고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페이스북 이용에 있어서는 친구를 맺는 과정이 있고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하게 되며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표현하는 등 적극적인 상호작용 행위가 수반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SNS 활용은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 느낌을 부여할 뿐 아니라 일종의 소속감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개인 삶의 만족도를 고양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Oh et al., 2013). 또 면대면 상호작용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매개 상호작용의 경우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간관계 유지를 추구한다(Myerson, 2001).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중독은 커뮤니케이션 수행 욕구를 충족하려는 동기 및 그로 인한 만족감 추구 요인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일종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으로 규정할 수 있는 페이스북 매개의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원인이 강력할수록 페이스북 중독 성향도 강화될 것이다.

2.2 개인의 성향과 페이스북 의존

지금까지의 인터넷 중독연구와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과이용을 다룬 연구 역시 주로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상태와 연관되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

면, 외향적인 사람들일수록 페이스북 이용 정도가 강하며 페이스북 이용에 대한 중독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rmody, 2012; Wilson et al., 2010). 나르시시즘 경향이 있는 젊은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페이스북 중독 증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a Barbera et al., 2009).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아 존중감이 낮거나 우울감이 있는 경우에도 페이스북 중독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으며(Carmody, 2012) 외로움을 인식하는 정도가 클수록 강박적인 페이스북 이용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La Rose, 2010).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면서 걱정이 큰 상태에 있을 때 페이스북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ndreassen, 2012). 나아가, 이러한 중독 증상을 병리학 혹은 정신질환적인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한 시도 역시 이루어졌다(Eucheburua and Corral, 2010; Karaiskos et al., 2010). 이상에서 보면, 페이스북 중독의 원인적 측면이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페이스북 이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교적 네트워크 내의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페이스북 의존 현상이 유발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디어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양립된 관점이 제시되어 왔다. 하나는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개인일수록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 관계와 소통 정도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관점(social enhancement perspective)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관점(social compensation perspective)이다. 전자는 오프라인에서 왕성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온라인에서의 영향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Valkenburg et al., 2005; Walther, 1996), 후자는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게 될 경우 결핍된 사

회적 상호작용을 온라인 환경에서 보상받고자 함을 나타낸다(Valkenburg et al., 2005; Valkenburg and Peter, 2007). 이러한 두 관점은 지금까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수행의 이유 및 결과에 대한 상반된 설명과 근거를 제공해왔다.

페이스북 이용과 관련해 이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위카와 대노우스키(Zywica and Danowski, 2008)는 페이스북 이용이 사회적 관계 강화(social enhancement) 및 사회 보상(social compensation) 측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상이한 함의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사교적이고 외향적이며 자아 존중감이 높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공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의 인기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내성적이고 자아 존중감이 낮은 이용자 집단 역시 자신에 대한 정보 노출 수위를 높임으로써 오프라인 인맥들과 공유하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과장되게 털어놓고 페이스북 공간에서나마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듯이 행동하는 경향도 밝혔다.

즉, 오프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왕성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혹은 사회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각각의 상황에서 모두 페이스북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수행 의지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자면, 페이스북 과이용은 오프라인에서의 결핍된 부분 혹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영역을 강화하기 위한 이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으로서 우울감, 외향성, 개방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페이스북의 중독적인 이용과 연관된 요인으로 상정했다. 우울감은 슬프거나 짜증스러운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여타의 활동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며 식욕저하, 불면증, 집중력과 자신감 상실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정신적 상태를 이른다(Reynolds, 1984). 우울감은 대인간 상호작용을 저해할 뿐 아니

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우울감, 고립감 및 불안감은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된다(Armstrong et al., 2000). 우울감이 심해질 경우 채팅이나 게임 등 과도한 인터넷 이용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Akin and Iskender, 2011; Young, 1998b). 한편, 병적인 인터넷 이용 증상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인터넷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고, 인터랙티브 게임(interactive game)에 빠지는 경우가 높다(Morahan-Martin and Schumacher, 2000). 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 성향은 대인관계 및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성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이룬다(Chou et al., 1999). 이러한 점들은 오프라인에서 충족하지 못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인터넷 매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회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의 연장선에서, 우울감이 심해질 경우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Caplan, 2003) 우울감을 느끼는 이용자들은 SNS 상의 인맥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드러났다(Oh et al., 2013). 즉,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을수록 이를 만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에 몰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Greenfield, 1999; Young and Rodgers, 1997a; Young and Rodgers, 1997b). 왜냐하면 정신적 긴장이나 방황으로부터 안도감을 얻기 위해 컴퓨터를 찾는 것으로부터 중독적 사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Young, 2004).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Hampton et al., 2011; PEW, 2013) 페이스북 친구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bi et al., 2013). 이상에서, 우울감이 상승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거나 부족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도한 페이스북 이용에 몰입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연구가설 1] 우울감 정도가 높을수록 페이스북 중독 성향이 강할 것이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개인의 성향(personality)을 외향성(extraversion), 유화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 성실성(conscientiousness), 그리고 개방성(openness) 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시도가 있다(McCrae and John, 1992). 이는 곧 개인 성향을 규정하는 모델(Big Five-Factor Model)로 정리되었으며 문화적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성향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다섯 가지의 상이한 특성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McCrae and Costa, 1997; Gosling et al., 2003). 그리고 이러한 개인 성향 요소들은 지금까지 주로 대인 관계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 왔다(Wiggins and Trapnell, 1996).

개인의 다섯 가지 성향 요인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외향성은 대외적인 활동의 폭이 넓고 활발한 성향을 이룬다(Costa and McCrae, 1992). 때문에 외향성은 대인 관계를 공고히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sendorpf and Wilpers, 1998).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 수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Amichai-Hamburger et al., 2002) 사회 참여적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기는 특성이 있다(Ashton et al., 2002). 또 성향이 외향적일수록 사회적 관계를 더 추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교적인 상황을 즐긴다(Costa and McCrae, 1980). 한편, 외향성을 지닌 사람일수록 사회적 자극에 더 높은 신경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shman et al., 2010).

이미, 특정한 개인의 성향은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Young and Rodgers, 1998). SNS 이용과 관련해서도 외향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페이스북 이용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Gosling et al., 2011). 외향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상에서 형성된 인맥 그룹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Ross et al., 2009) 이들은 오프라인에서뿐 아니라 SNS 상에서도 보다 광범위한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ywica and Danowski, 2008). 이와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볼 때,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프라인의 활발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페이스북 상에서도 지속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그것은 페이스북의 과도한 이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용량이 곧 중독적 성향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외향적 성향과 페이스북 중독 성향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러나 페이스북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의존하고 몰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방성은 새로운 경험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성향을 이르며(Costa and McCrae, 1980), 다섯 가지 성격 요인 중 개방성 역시 페이스북의 과도한 이용과 관계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개방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SNS를 더욱 왕성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Ross et al., 2009) 외향적이면서 개방적인 특성을 갖추었을 때 SNS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rrea et al., 2010). 즉, 외향성과 더불어 개방성 역시 대인관계 유지와 형성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cCrae, 1996). 이를 감안할 때, 개방성은 페이스북 이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몰두하도록 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실제, 개방적 성향을 띠고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좀 더 많은 페이스북 인맥을 보유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이용 시간도 더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Skues et al., 2012). 한편, 외향성과 개방성은 모두 자극을 추구(sensation seeking)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Aluja et al., 2003) 자극 추구 성향은 과도한 인터넷 이용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Armstrong et al., 2000). 즉, 개방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대인관계 및 사회적 경험을 지향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개방성은 페이스북의 과도한 이용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그것이 페이스북의 중독 성향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2] 개방적 성향과 페이스북 중독 성향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애초에 의도했던 결과를 상호작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기술로 정의된다(Spitzberg and Cupach, 1984). 커뮤니케이션의 특정한 목표 달성 여부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Rickheit et al., 2008)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수행의 주요한 전제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의지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Donovan and MacIntyre, 2004).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매개된 상호작용 상황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대인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한다. 가령,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빈번한 휴대전화 사용 및 대인관계의 유지와 확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Hwang and Kim, 2009).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불안감이 높은 상태라면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수행을 통해 자신의 뜻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Kelly et al., 2010).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개인이 대외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대인 네트워크 유지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 될 뿐

아니라 고립된 개인의 공동체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을수록 대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규모를 확장하는 능력도 높기 때문에 대인 네트워크 크기가 큰 경우에는 대체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Query and James, 1989). 특히 SNS 이용에 있어서는 대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므로(boyd and Ellison, 2007) 페이스북 등 SNS의 적극적인 이용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을 경우 페이스북 상에서는 사회적 지지감을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페이스북 이용자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Wright et al., 2013). 기존의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알코올 중독과 같은 중독 성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높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우울감 및 대인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개인의 중독적 성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and Kim, 2008). 또한 낮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알코올 중독 성향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Black et al., 1986; Dinning and Berk, 1989). 낮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대인관계의 위축을 초래하며 사교적 행동 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며 고립된 상태로 놓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Giles et al., 1992).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한 대외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의 수행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과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경향도 밝혀졌다(Walther, 1999).

이상의 상황에서 본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어떠한 성향 혹은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도 그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페이스북과 같

이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울감, 그리고 외향성 및 개방성과 페이스북에 대한 과도한 의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매개로 우울감, 외향성, 개방성이 페이스북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3.1 자료의 수집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2013년 4월 2주에 걸쳐 한 조사전문회사의 패널 그룹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했다. 총 600개의 수집된 응답 중 남성은 310명(51.7%) 여성은 290(48.3%)이었고 평균 연령은 39.19세(SD = 10.57)로 확인됐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중졸 이하 4명(0.7%), 고졸자 81명(13.5%), 대학생 60명(10.0%), 대졸자 400명(66.7%), 그리고 대학원졸 이상이 55명(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하루 평균 페이스북 접속 횟수는 4.97회(SD = 6.91)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페이스북 이용 시간을 분 단위로 환산하면 평일 평균 86.96분(SD = 97.50, 최소 0분~최대 1260분), 주말 동안의 페이스북 이용 시간 평균은 99.56분(SD = 103.12, 최소 0분~최대 660분)이었다. 이는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13)에서 조사한 하루 평균 SNS 이용량 72.8분보다 더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3.2 측정 척도

3.2.1 페이스북 중독 성향

페이스북의 중독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SNS 중독 성향(SNS addictive tendencies)을 나타내는 척도(Wilson et al., 2010)를 사용했다. 척도는 세 개의 질문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SNS 이용의 통

제력 및 이용의 현저성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에서는 본래의 설문항목에 기재된 'SNS'라는 표현 대신 '페이스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했고(1 = 전혀 아니다~5 = 매우 그렇다) 페이스북 중독 성향의 평균은 2.26(SD = 0.93)이고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50으로 확인됐다.

3.2.2 우울감

스무 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우울지수 측정 척도(Zung, 1965)를 통해서 우울감을 측정하도록 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했다(1 = 전혀 아니다~5 =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울감 평균은 2.82(SD = 0.56),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53으로 나타났다.

3.2.3 외향성 및 개방성

개인의 성향을 구분한 다섯 유형 모델(Big Five-Factors Model) 중에서(McCrae and John, 1992) 외향성과 개방성 척도(Gosling et al., 2003)를 채택해 사용했다. 특히 고슬링 등이(Gosling et al., 2003) 제안한 척도는 개인 성향을 보다 간략하게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각각의 성향별로 두 개씩의 질문 항목을 제공한다.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해 구하도록 하였다(1 = 전혀 아니다~5 = 매우 그렇다). 그 결과, 외향성의 평균은 2.90(SD = 0.80, Cronbach's alpha = 0.60), 개방성의 평균은 3.26(SD = 0.70, Cronbach's alpha = 0.68)으로 확인됐다.

3.2.4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측정을 위해서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 점수를 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지각된 커뮤니케이션 능력(self-perceived communication competence) 척도(McCroskey and McCroskey, 1988)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상이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나타내는 12개의 질문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서 응답자가 커

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능력이 몇 점 정도일지를 짐작해 점수로 표기하는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된다.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구사할 수 있다고 평가되면 100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0점으로 점수를 기입하게 된다. 측정 항목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 “친구와 대화 하는 상황”, “지인들과의 소규모 모임에서 대화하는 상황” 등으로 제시되었다. 12개의 상황에 매겨진 점수를 평균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평균은 67.42(SD = 17.7)이고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96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인식의 높고 낮은 집단 구분은 여기에서 드러난 평균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그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52명(58.7%)이었고 이들 집단의 평균 점수는 78.96점(SD = 7.42, 최소값 67.50, 최대값 100)이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낮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48명(41.3%)이고 이들 집단의 평균 점수는 51.04(SD = 14.92, 최소값 8.33, 최대값 67.33)로 조사되었다.

4. 분석 결과

4.1 페이스북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울감 인식이 페이스북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변수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과 연령, 그리고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뒤 우울감과 페이스북 중독 성향간의 관계를 확인했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우울감은 페이스북 중독 성향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eta = .27, p < .001$) 그에 따라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하지만, 외향성과 페이스북 중독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외향성은 페이스북 중독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beta = .08, p > .05$).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개방성 역시 페이스북의 중독 성향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 = -.05, p > .05$). 즉, 개인의 외향성 및 개방성 정도는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한편, 통제변수로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연령요인만이 페이스북 중독 성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이루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페이스북 중독 성향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beta = -.16, p < .001$).

4.2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페이스북 중독 성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매개로 우울감, 외향성, 그리고 개방성 등 개인적 성향이 페이스북의 중독적

<Table 1> Regression Analysis on Facebook Addictive Disposition

Predictors	β	<i>t</i>	sig	β	<i>t</i>	sig	β	<i>t</i>	sig	β	<i>t</i>	sig
gender	.05	1.178	.239	.02	.615	.539	.05	1.130	.259	.05	1.101	.271
age	-.16	-3.891	.000	-.16	-4.026	.000	-.16	-3.970	.000	-.16	-3.853	.000
education	.01	.237	.812	.03	.663	.507	-.001	.014	.989	.01	.329	.743
R^2	.028											
<i>F</i>	5.685(p = .001)											
depression				.27	6.854	.000						
extraversion							.08	1.849	.065			
openness										-.05	-1.195	.232
R^2 (ΔR^2)				.099(.071)			.033(.006)			.030(.002)		
<i>F</i>				16.338(p = .000)			5.136(p = .000)			4.624(p = .001)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2>에 제시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에 부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beta = -.11, p < .01$).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낮을수록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제함으로써 우울감, 외향성, 그리고 개방성이 커뮤니케이션의 중독적 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우울감이 높을수록 페이스북의 중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고($\beta = .31, p < .001$) 외향성이 높을 경우에도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 p < .001$). 반면, 개방성은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우울감이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2>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Facebook Addictive Disposition

predictors	β	<i>t</i>	sig
gender	.01	.200	.842
age	-.16	-4.128	.000
education	.02	.389	.698
R^2	.023		
<i>F</i>	5.685($p = .001$)		
communication competence	-.11	-2.485	.013
adjusted R^2 (ΔR^2)	.032(.009)		
<i>F</i>	5.961($p = .001$)		
depression	.31	7.277	.000
extraversion	.19	4.280	.000
openness	.03	.723	.470
adjusted R^2 (ΔR^2)	.122(.090)		
<i>F</i>	12.944($p = .001$)		

5. 결 론

본 연구는 개인의 성향으로서 우울감, 외향성, 그리고 개방성이 페이스북 중독 성향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따라 우울감과 외향성 및 개방성이 페이스북 중독 성향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울감 인식은 페이스북 중독 성향을 고조시켰으며 개인의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은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낮을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중독적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매개로 할 때, 우울감이 페이스북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 외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 가능성 역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미 기존의 연구(Zywica and Danowski, 2008)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일종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페이스북의 이용에 있어서 사회보상 관점 및 사회적 관계 강화 관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하게 되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진다(Young, 1998b). 마찬가지로, 우울감이 높을 때 온라인을 통한 상호작용 갈망 요구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온라인 매개 상호작용 갈망은 결국 인터넷 과이용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Caplan, 2003) 그렇기 때문에 우울감이 높으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페이스북 상에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페이스북의 과도한 이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또 오프라인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교적 상호작용 플랫폼이 되는 페이스북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오프라인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온라인에서도 유지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결핍된다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혀진 바

있다(Segrin and Flora, 200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낮을 경우에 오히려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이 초래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낮을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상호작용 대신 페이스북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즉,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결국 오프라인이 아닌 페이스북 이용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존하게 되며 과도한 페이스북 이용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간주된다. 일례로, 자아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및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극복하게 해주는 대안으로서 휴대폰의 병적 몰입이나 강박적 이용 지수가 현저하고(Woo, 2007) 자기 효능감이 낮아지면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Anandarajan et al., 2000)등에 주목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할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독 성향은 회피, 대인 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추구 성향과 관계가 있다는 점(Chou et al., 1999) 역시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 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은 페이스북을 이용한 컴퓨터 매개의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사회 보상(social compensation)의 관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우울감 및 외향적인 성향 모두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발할 수 있으나(Spitzberg and Cupach, 1984) 이 경우, 커뮤니케이션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부족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완하거나 혹은 이미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페이스북 이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페이스북은 우울감으로 인해 단절된 상호작용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하나의 대안적 소통 채널

로서 과도한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외향적이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사람들은 대개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대인 상호작용을 수행하게 되는데(Ashton et al., 2002; McCrae, 1996) 페이스북 사용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더라도 오프라인에 이루어지는 충분한 상호작용을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어가며 강화하기 위해 페이스북 이용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결국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으로까지 발전될만한 단서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 들은 페이스북 매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 강화(social enhancement) 관점과도 관련된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주로 대립적으로 논쟁을 진행하는 데 배경이 되었던 사회 보상의 관점 및 사회적 관계 강화의 관점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 환경에서 상호 배타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보다는 이 두 관점이 서로 양립하고 공존하는 가운데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변화와 발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셋째, 정책적 차원에서 페이스북 중독에 의한 대인관계 혹은 사회적 단절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스마트 미디어가 보급된 상황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이용이 상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인터넷 중독보다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울감 정도가 강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페이스북의 과도한 이용이 중독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오프라인 세계와의 단절이라는 악순환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특히, 고통스럽고 불편한 심리상태에 있을 경우 온라인 공간에 몰입함으로써 일시적인 평온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패턴이야말로 인터넷의 중독적 이용을 강화 한다(Peele and Brodsky, 1991). 비록 페이스북 상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수행하며 현실에서의 우울감을 만회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지나친 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현실과의 단절이 깊어지는 등 일시적인 회피에 그칠

뿐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온라인 상호작용 중독은 대인관계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키며(Lo et al., 2005) 인터넷 과이용은 사회적 고립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결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anders et al., 2000). 이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의 모습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과시하거나 오프라인에서 교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차원에 국한된 페이스북 과이용 역시 우울감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정신적 긴장이나 삶의 방향으로부터 안도감을 얻기 위해 시작된 인터넷 중독이 궁극에는 현실의 고립을 강화하는 것 같이(Young, 1998b; Young, 2004) 페이스북 매개의 과도한 상호작용 역시 우울감을 만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것(Yang et al., 2012)을 보더라도 페이스북 상에서는 현실과는 다른 상황을 경험하고자 강박적인 페이스북 이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외향성을 바탕으로 페이스북 상에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것이 지나친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이 역시 사회적 고립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강박적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페이스북의 중독적 성향을 사교적 상호작용에 한정하여 해석하도록 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상에서는 갈수록 다양한 정보와 많은 홍보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중독적 이용이 반드시 대인 관계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경우 대인 관계를 통해 얻지 못한 정보를 페이스북 상의 각종 정보나 뉴스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에서 인식하지 못한

소속감을 페이스북 상에서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에 구독함으로써 대신 경험할 가능성도 크다. 즉, 후속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중독 혹은 페이스북 과이용을 사교적 측면과 정보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면 보다 풍부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에는 중독적 성향을 판단하기 위해 뇌신경 반응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 반응을 측정하는 기법이 등장했다. 페이스북 중독 성향 역시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그 경중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중독적 성향을 판단하고 응답하는 서베이 방법을 채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신체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방법론적인 정확성 및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Akin, A. and M. Iskender, "Internet addiction and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International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Sciences*, Vol. 3, 2011, 138-148.
- Aluja, A., O. García, and L.F. García, "Relationships among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nd sensation see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5, 2003, 671-680.
- Amichai-Hamburger, Y., G. Wainpel, and S. Fox, "On the internet no one knows I'm introvert : Extroversion, Neuroticism, and internet intera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 5, 2002, 125-128.
- Anadarajan, M., C. Simmers, and M. Igari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the antecedents and impact of internet usage : An individual perspective", *Behavior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19, 2000, 69-85.

- Andreassen, C.S., "Development of a Facebook Addi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Vol.110, 2012, 518-520.
- Armstrong, L., J.G. Philips, and L.L. Sailing, "Potential determinants of heavier internet usag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Computer Studies*, Vol.53, 2000, 537-550.
- Asendorpf, J.B. and S. Wilpers, "Personality effects on social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4, 1998, 1531-1544.
- Ashton, M.C., K. Lee, and S.V. Paunonen, "What is the central feature of extraversion? Social attention versus reward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3, 2002, 245-252.
- Black, C., S.F. Bucky, and S. Wilder-Padilla, "The interpersonal and emotional consequences of being an adult child of an alcoholic",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Vol.21, 1986, 213-231.
- Boyd, D.M. and N.B. Ellison, "Social network sites :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3, 2007, 210-230.
- Caplan, S.E., "Preference for online social interaction : A theory of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psychosocial well-being", *Communication Research*, Vol.30, 2003, 625-648.
- Carmody, C.L., "Internet addiction : Just Facebook me! The role of social networking sites in internet addiction", *Computer Technology and Applications*, Vol.3, 2012, 262-267.
- Chou, C., J. Chou, and N.N. Tyan, "An exploratory study of internet addiction, usage, and communication pleasure : The Taiwan's case", *Computer Education*, Vol.35, 1999, 65-80.
- Correa, T., A.W. Hinsley, and H.G. de Zúñiga, "Who interacts on the web? The intersection of users' personality and social media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6, 2010, 247-253.
- Costa, P.T. and R.R. McCrae,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8, 1980, 668-678.
- Costa, P.T. and R.R. McCra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NEO-FFI)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 1992.
- Davis, R.A.,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17, 2001, 187-195.
- Dinning, W.D. and L.A. Berk,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 Relationship to sex, family environ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45, 1989, 335-339.
- Donovan, L.A. and P.D. MacIntyre, "Age and sex differences in willingness to communicate, communication apprehension,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21, 2004, 420-427.
- Eucheburua, E. and P. de Corral, "Addiction to new technologies and to online social networking in young people : A new challenge", *Adicciones*, Vol.22, 2010, 91-95.
- Fishman, I., R. Ng, and U. Bellugi, "Do extraverts process social stimuli differently from introverts?", *Cognitive Neuroscience*, Vol.1, 2010, 1-7.
- Giles, H., N. Coupland, and P. Wu, "One for the road then?, Communicative and sociolinguistic parameters of social and problem drink-

- 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Vol.2, 1992, 139-165.
- Gosling, S.D., A.A. Augustine, S. Vazire, A. Holtzman, and S. Gaddis, “Manifestations of personality in online social networks : Are Social Network Sites for Networking or Presenting? Self-reported facebook-related behaviors and observable profile informa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4, 2011, 483-488.
- Gosling, S.D., P.J. Rentfrow, and W.B.J. Swann,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 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37, 2003, 504-528.
- Greenfield, D.N., *Virtual addiction*, New Harbinger Publications, Oakland CA, 1999.
- Griffiths, M.D., “Internet addiction : Time to be taken seriously?”, *Addiction Research*, Vol. 8, 2000, 413-418.
- Griffiths, M.D., “Technological addictions”, *Clinical Psychology Forum*, Vol.76, 1995, 14-19.
- Hampton, K.N., L.S. Goulet, L. Rainie, and K. Purcell, *Social networking sites and our lives. Pew Research Center’s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 Washington, D.C.*, 2011.
- Hwang, Y.S. and J.H. Kim,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n Mobile Phone Use and Relational Maintenance Behavior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9, No.3, 2009, 687-719.
- Jin, C.H. and E.C. Chung, “How do individual differences influence Internet Credibility and Online Game Addi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9, No.3, 2009, 543-576.
- Johnson, K., F. McMahon, and E. Kelly-Dalgety, “The role of an online community in improving the wellbeing of geographically dispersed young people living with an illness or disability”, *Paper presented at 12th National Rural Health Conference*, Australia, 2013.
- Kandell, J.J., “Internet addiction on campus : The vulnerability of college student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 1998, 11-17.
- Karaiskos, D., E. Tzavellas, G. Balta and T. Parrigopoulos, “Social network addiction : A new clinical disorder?”, *European Psychiatry*, Vol.25, 2010, 855.
- Keepers, G.A. “Pathological preoccupation with video gam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29, 1990, 49-50.
- Kelly, L., J.A. Keaten, M. Hazel, and J.A. Williams, “Effects of reticence, affect for communication channels,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on usage of instant messaging”,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27, 2010, 131-142.
- Kim, M.K. and J.H. Kim,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sychosocial Problems On Alcohol Use Disord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52, No.4, 2008, 205-222.
- Kim, M.S., E.M. Choi, S.H. Lee, and J.H. Bae, “Development and Preliminary Outcome Study of Smartphone Overu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of Middle School”,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T Services*, Vol.12, No.4, 2013, 307-318.
- Kim, S.Y., S.Y. Choi, and B.S. Kim, “The Impact of Self-Consciousness, Stress, and Internet Use Control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ul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T Services*, Vol.6, No.3, 2007, 47-67.
- Kirschner, P.A. and A.C. Karpinski, “Facebook

- and academic performa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6, 2010, 1237-1245.
- KISDI, *The Analysis of SNS Use Tendency*, KISDI : Seoul, 2013.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vestigation of Broadcasting Media Use*, KCC, Seoul, 2012.
- KRIVET, *A Comparative Study of Adolescents' SNS Use and Traits*, KRIVET : Seoul, 2013.
- Kuss, D.J. and M.D. Griffiths, “Addiction to social networks on the internet : A literature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Vol.8, 2011, 3528-3552.
- La Barbera, D., F. La Paglia, and R. Valsavoia, “Social network and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2, 2009, 628-629.
- LaRose, R., “The Problem of Media Habits”, *Communication Theory*, Vol.20, 2010, 194-222.
- Lee, C.H.,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Reality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and Prevention of Smart Phone Addiction*, 2013.
- Lo, S., C. Wang, and W. Fang, “Physica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anxiety among online game player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8, 2005, 15-20.
- McCrae, R.R., “Social consequences of experiential openn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120, 1996, 323-337.
- McCrae, R.R. and O.P. John,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Vol.60, 1992, 175-215.
- McCrae, R.R. and P.T. Costa, “Personality trait structure as a human universal”, *American Psychologist*, Vol.52, 1997, 509-516.
- McCroskey, J.C. and L.L. McCroskey, “Self-report as an approach to measuring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5, 1988, 108-112.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Korea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Construction of Adolescents' Healthy Smart Phone Use Culture*, 2013.
- Morahan-Martin, J. and P. Schumacher, “Incidence and correlates of pathological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16, 2000, 13-29.
- Myerson, G., *Heidegger, Habermas, and Mobile Phone*, Icon Books, London, 2001.
- Nabi, R.L., A. Prestin, and J. So, “Facebook friends with (health) benefits? Exploring social network site use and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stress, and well-being”,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6, 2013, 721-727.
- NIA, Report of 2011 Internet Addiction, NIA, Seoul, 2012.
- NIA, *Studied of Trend of Policy and Legal Systems for Internet Addiction*, NIA : Seoul, 2008.
- Oh, H.K., C. Lauckner, C., J. Boehmer, R. Fewins-Bliss, and K. Li, “Facebooking for health : An examination into the solicitation and effects of health-related social support on social networking si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9, 2013, 2072-2080.
- Park, J.E. and H.I. Kwo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xtraction of Game Addiction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T Services*, Vol.6, No.3, 2007, 163-177.
- Peele, S. and A. Brodsky, *The truth about addiction and recovery : The life process program for outgrowing destructive habits*, Simon and Schuster, New York NY, 1991.
- Pelling, E.L. and K.M. White, “The theory of

- planned behavior applied to young people's use of social networking web site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2, 2009, 755-759.
- People's Livelihood Economy Research Institute.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Prevention of Internet Addiction and Treatment*, 2010.
- PEW, *Teens, Social Media, and Privacy*, 2013.
- Query, J.L. and A.C. Jam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among elderly support groups in retirement communities", *Health Communication*, Vol.1, 1989, 165-184.
- Reynolds, W.M.,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Phenomenology, evaluation, and treat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Vol. 13, 1984, 171-182.
- Rickheit, G., H. Strohner, and C. Vorwerg, *The concep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G. Rickheit and H. Strohner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competence*, Walter de Gruyter GmbH and Co, Berlin, 2008, 15-62.
- Ross, C., E.S. Orr, M. Sisic, J.M. Arseneault, M. G. Simmering, and R.R. Orr, "Personality and motivations associated facebook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5, 2009, 578-586.
- Sanders, C.E., T. Field, M. Diego and M. Kaplan,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use to depression and social isolation among adolescents", *Adolescent*, Vol.35, 2000, 237-242.
- Segrin, C. and J. Flora, "Poor social skills are a vulnerability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problem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26, 2000, 489-514.
- Shapira, N., M. Lessig, T. Goldsmith, S. Szabo, M. Lazoritz, M. Gold, and D. Stein, "Problematic internet use : Proposed classification and diagnostic criteria", *Depression and Anxiety*, Vol.17, 2003, 207-216.
- Skues, J.L., B. Williams, and L. Wise,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self-esteem, loneliness, and narcissism on Facebook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28, 2012, 2414-2419.
- Song, H.J., "A Study on SNS addiction using smart phones",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Vol.1, No.2, 2011, 31-49.
- Spitzberg, B.H. and W.R. Cupach,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age, Beverly Hills CA, 1984.
- Tamir, D. and J.P. Mitchell, "Disclosing information about self is intrinsically rewarding", *PNAS*, Vol.109, 2012, 8038-8043.
- Turkle, S., *Alone together*, Basic Books, New York, 2011.
- Valkenburg, P.M. and J. Peter, "Online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well-being : Testing the stimulation versus the displacement hypothesi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2, 2007, 1169-1182.
- Valkenburg, P.M., A.P. Schouten, and J. Peter, "Adolescents' identity experiments on the Internet", *New Media and Society*, Vol.7, 2005, 383-402.
- Walther, J.B., "Communication addiction disorder : Concern over media, behavior and effec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1999.
- Walther, J.B.,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 Impersonal, interpersonal, and hyperperson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23, 1996, 3-43.
- Wiggins, J.S. and P.D. Trapnell, *A dyadic-in-*

- teractional perspective on the five-factor model*, In J. S. Wiggins (E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 Theoretical perspectives*, Guilford, New York, 1996, 180-207.
- Wilson, K., S. Fornasier, and K.M. White, "Psychological predictors of young adult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Vol.13, 2010, 173-177.
- Winn, M., *The plug-in drug*, Viking, New York, 1983.
- Woo, H.J.,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obile Phone Users' Self-Traits on Mobile Phone Addiction : Focusing o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21, No.2, 2007, 391-427.
- Wright, K.B., J. Rosenberg, N. Egbert, N.A. Ploeger, D.R. Bernard, and S. King, "Communication competence,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 A model facebook and face-to-face support network influence",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Vol.18, 2013, 41-57.
- Yang, H.S., J.H. Kim, and M.H. Seo, "Does Facebook Enrich Our Social Relations? :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Psychological Motivation, Facebook Use Behavior,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56, No.5, 2012, 270-297.
- Young, K.S. and R. Rodgers, "Depress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pathological internet use", *Poster presented at the 68th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1997a.
- Young, K.S. and R. Rodgers, "Internet addiction : Personality traits associated with its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69th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8.
- Young, K.S. and R. Rodger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using the BDI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Post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1997b.
- Young, K.S., "Internet addiction : A new clinical phenomenon and its consequenc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48, 2004, 402-415.
- Young, K.S., "Internet addiction :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 1998a, 237-244.
- Young, K.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 1998b, 25-28.
- Young, K.S., *Internet addiction :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 Creek and T.L. Jacton (Eds.),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Professional Resource Press, Sarasota, FL, Vol.17, 1999.
- Zung, W.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12, 1965, 63-70.
- Zywica, J. and J. Danowski, "The faces of facebookers : Investigating social enhancement and social compensation hypotheses : Predicting facebook and offline popularity from sociability and self-esteem, and mapping the meanings of popularity with semantic network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4, 2008, 1-34.

◆ About the Authors ◆



Yoosun Hwang (yshwang@joongbu.ac.kr)

Yoosun Hwang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of Joongbu University a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he received her Ph.D. in Communication from Yonsei University in 2010.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CMC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e-business, and etc.